

보도시점 (온라인) 2026. 04. 23.(목) 12:00
(지 면) 2026. 04. 24.(금) 조간

휠체어로 카누 타고 국립공원 명소까지 교통약자의 '봄나들이'가 가벼워집니다

- 행안부, '열린 관광지' 등 교통약자 맞춤형 혁신 공공서비스 선정·발표

따뜻한 봄날, 시각장애 가족과 함께 캠핑에 나선 ㄱ씨

시각장애가 있는 동생을 둔 ㄱ씨에게 여행은 늘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열린관광지'를 통해 가족 캠핑을 즐기게 됐다. 다양한 시청각 안내시설을 구비한 캠핑장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ㄱ씨는 “이전에는 정보 접근이 어려워 여행 자체를 망설였지만, 요즘에는 일상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늘어나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유모차를 동반한 외출에 부담을 느끼던 영유아 부모 ㄴ씨

영유아를 키우는 ㄴ씨는 유모차를 밀고 병원이나 문화센터를 오갈 때마다 높은 보도 턱과 가파른 경사로 인해 외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동행맵'을 통해 유모차가 가기 좋은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저상버스 예약 기능'을 통해 유모차를 끌고도 안전하게 버스에 오를 수 있게 됐다. ㄴ씨는 “유모차로 경사로를 피해 돌아가다 길을 헤매는 일이 잦았는데, 아이와의 외출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동네 친구들과 국립공원 나들이 나선 80대 ㄷ씨

80대인 ㄷ씨는 봄날 친구들과 관광명소 나들이를 가고 싶어했지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 오래 걷거나 이동하기 불편해진 친구들이 많다보니 이동 경로와 편의시설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ㄷ씨는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를 이용해 그동안 가볼 수 없었던 자연 속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ㄷ씨는 “오랫만에 멀리 가는 여행이라 모두들 많이 설렘했다”며 “이동에 대한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어 특별했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열린 관광지' '서울동행맵'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를 혁신 공공서비스-교통약자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가족,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31.5%(2024년 기준)에 달하며, 고령화 추세 등에 따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외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장애 기반 시설 확충 및 관광 정보 제공 확대>

-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열린 관광지’는 나이나 장애 등 제약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단순히 기반 시설(인프라)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즐기는 카누’와 같이 차별 없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 또한, 열린관광 누리집을 통해 전국 약 8,500여 개의 관광지와 숙박·식음 시설에 대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교통약자 맞춤형 통합 교통 서비스 앱 운영>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동행맵’은 고령자와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단차나 경사, 보도 폭 등을 반영한 최적의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용자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인근 정류소의 저상버스를 예약해 승하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역사 내 유·무, 수유실, 장애인 화장실 등 필수 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최근에는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다양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탐방 지원 및 차량 이동 서비스 추진>

- 국립공원공단은 이동 부담으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평소 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북한산, 무등산 등 11개 국립공원의 명소 14개소에 차량 이동을 지원하는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 동반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도 안전하고 여유롭게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서비스	주요 내용	이용 방법
열린관광 (한국관광공사)	추천 여행코스, 무장애 동선 및 편의시설 정보 유형별 검색, 숙박시설 100여개의 객실 내부 도면(출입문 폭, 침대 높이 등) 3D 영상 제공	‘열린관광 누리집’(access.visitkorea.or.kr)을 통해 무장애 관광정보를 검색하고, 신체 능력 등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 *문의: 033-738-3000
서울동행맵 (서울특별시)	실시간 버스 정보 및 저상버스 예약, 인근 지하철 역무원 통화 지원, 휠체어/유모차 이용 길안내, 서울엄마야빠 택시,장애인콜택시 등 연계, 교통약자 편의시설 위치 정보(휠체어 충전소,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등) 안내	모바일에서 서울동행맵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 명소 차량이동 서비스 (국립공원공단)	4월 30일부터 11월 22일 중 지리산 노고단, 무등산 장불재 등 14개소 차량 이동 서비스 지원 (각 공원 마다 일정이 상이 할 수 있어 누리집 확인 필요)	국립공원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신청(4.17.~26.) 추첨을 통해 선정, 추첨 종료 후에는 선착순 접수로 운영. *문의: 1670-9201 (평일 9~18시, 점심시간 12~13시)

- 이번 혁신 공공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민재 차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 "누구나 소외 없이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혁신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참여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	책임자	과 장	장은영 (044-205-2201)
		담당자	사무관	이정흔 (044-205-2217)

